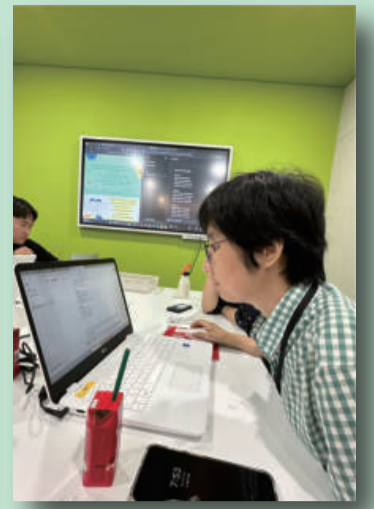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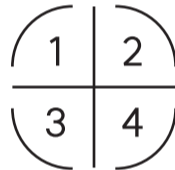


# 자비스연구실

인공지능시대, 지적장애인의 삶이 궁금했던 우리가  
성인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AI체험교실을 계획하고 실천해 본 이야기



지적장애 당사자를 위해 어려운 어휘를 최대한 줄이고 편하게 읽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더 좋은 부분이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것이니까요.



자비스연구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들의 지능이 가진 한계를 넘게 해줄까?  
아니면 더 큰 소외와 차별을 초래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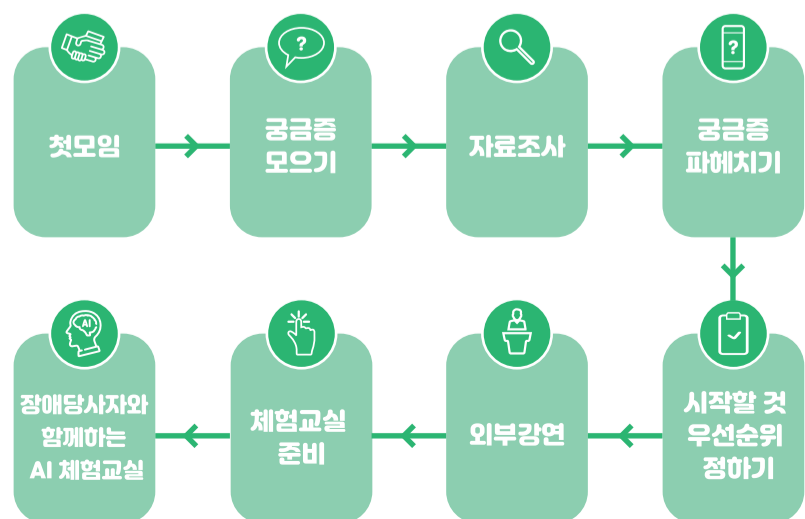
궁금하고 불안했던 엄마는 이 고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화 "어벤저스" 속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에서  
이름을 따온 자비스연구실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당신 옆의 공익활동> 사업을 통해 활동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찾아보고, 도움을 구하고, 조금씩 시작해보요.

## 자비스 연구실 활동



이미 인공지능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이 기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려줄 수 있을까?

현실의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이  
핵심인데, 지적장애인들에게 생산성을 높여서 해볼만한 작업  
자체가 많지 않아. 그들에게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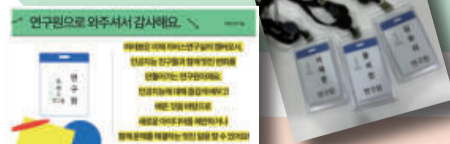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를 만들거야.

지적장애인들이 인공지능기술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술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보는 경험은 꼭 필요해.

그렇다면 장애 당사자와 함께 워크샵을 해보는게 어때?  
워크샵이란 말은 어려우니 '체험교실'이 좋겠어.

학령기 이후, 배움의 기회가 더 멀어진 성인으로,  
그리고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경도지적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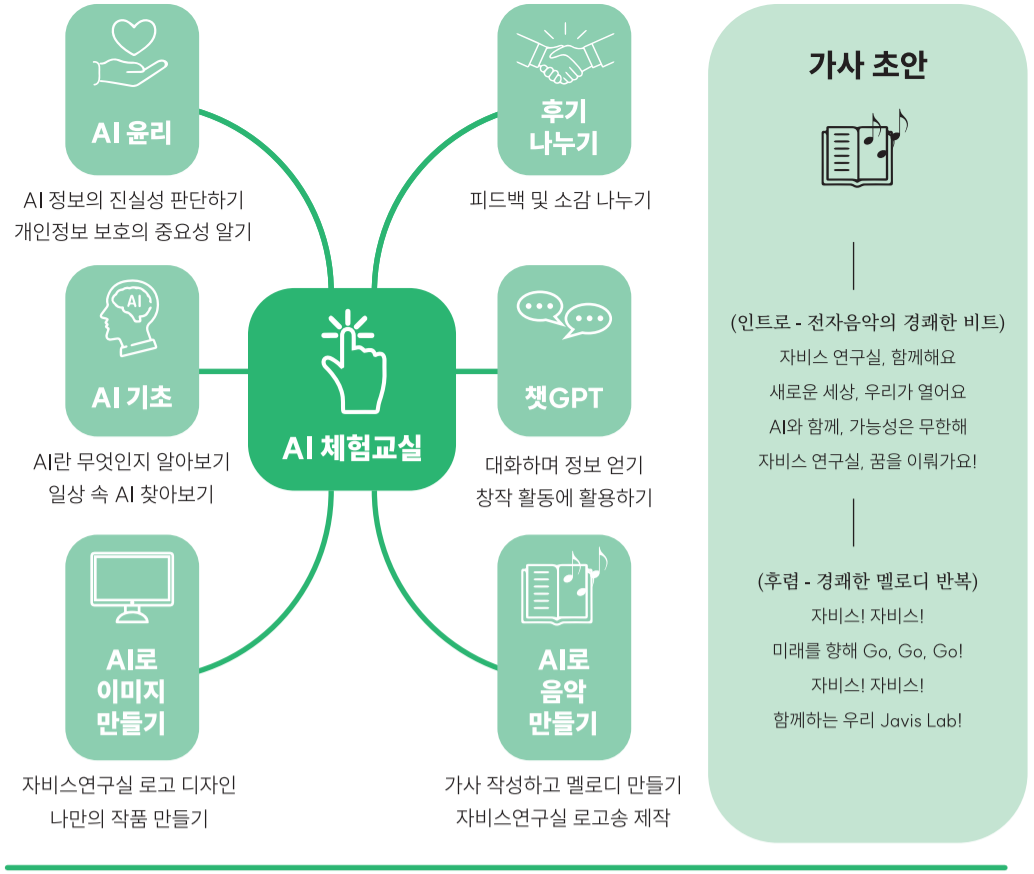
우리도 아직 경험이 없고 시간도 부족하니 2-3명만,  
아주 작게 시작해보자!



지적장애인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지고.

바로 결과물이 눈에 보여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해.

자비스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임무를 주는 거 어때?  
자비스연구실에 지금 필요한 로고와 로고송을 만드는거야!



**가사 초안**

(인트로 - 전자음악의 경쾌한 비트)

서비스 연구실, 함께해요  
새로운 세상, 우리가 열어요  
AI와 함께, 가능성은 무한해  
서비스 연구실, 꿈을 이뤄가요!

(후렴 - 경쾌한 멜로디 반복)

서비스! 서비스!  
미래를 향해 Go, Go, Go!  
서비스! 서비스!  
함께하는 우리 Jarvis Lab!

**우리들의 이야기 - 장애당사자 -**

**내 소개**  
이름: 이예준  
좋아하는 것: 슬라임, 파충류

**ChatGPT와 대화해봤어요**  
내가 한 질문: 친구들과 어떻게 해야할지 잘 지내고 싶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AI의 대답: 잘 할 수 있어요.  
느낀 점: 신기했고 AI가 말한 것처럼 실천을 해볼꺼다.

**AI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 서비스 연구실  
느낀 점: 노래가 좋았고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다.

**AI 체험을 마치고 나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나의 고민 그런 것들을 바로 얘기해주고 너무 신기했고 수업 듣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어려웠던 점: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거 같아서 힘들었다.  
앞으로 AI로 해보고 싶은 것: 잘 대화하고 싶고 많이 도움이 될거 같다.

나의 AI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친구들한테 조언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이런 거를 잘 얘기해줘서 고마웠고 다음에는 친구 말고 공부 영어 수학 이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 다음에 서로 알아가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나도 꼭 말해준 것 처럼 지킬꺼고 지나간 애들 말고 지금 있는 친구랑 잘 지내도록 노력할께. 고마워 앞으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기술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개해줘 그럼 꼭 해볼께.

**내 소개**  
이름 : 김유리  
좋아하는 것 : 공원에서 나만의 속도로 걷기&달리기 운동  
AI를 보고 든 생각 : 이전에도 AI 사용을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ChatGPT와 대화해 보았어요**  
내가 한 질문 : 종각역 근처, 일요일 저녁 영업하는 맛집  
AI의 대답 : 종각역 근처, 일요일 저녁 영업하는 맛집 몇 군데를 찾아주었습니다.  
느낀점 : 포털 검색하는 것보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확실히 편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을 때, 엉뚱한 답변을 받은 기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더 자세히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AI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어요**  
느낀 점 : AI로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AI 체험을 마치고 나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 각자가 만든 노래를 들어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나의 AI친구에게 하고싶은 말 : 5년에서 10년 뒤 AI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면 다시 이용해보려합니다.  
아직은 2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지불하고 사용하기에는 시가상조인 듯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즐거웠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 장애당사자 -**

**내 소개**  
이름: 윤서진  
좋아하는 것: 클래식음악, 프랑스 여행, 댄스  
AI란: 인지인공지능  
AI를 보고 든 생각: 신기하고 재미있다.

**AI와 함께 로고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로고 그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을 담은 로고  
로고에 담긴 의미: 내가 프랑스를 좋아해서 고전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다.

**AI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어요**  
느낀점: 하얀거탑의 분위기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 재미있었다.

**AI 체험을 마치고 나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로고송만들기  
어려웠던 점: 처음이라서 키보드를 빨리치지 못한 것  
앞으로 AI로 해보고 싶은것은: 작곡, 시 짓기  
나의 AI친구에게 하고싶은 말: 즐겁게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내 친구 재민이에게도 너를 소개하고 싶어. 더 많은 인공지능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정윤수 공모원**  
예상보다 참여자들이 반응을 아주 잘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교육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을 진행해도 될 거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번 교육처럼 흥미위주의 체험보다는 참여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교육 느낌으로 교육 설계해서 진행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챗gpt활용한 보고서 작성, 작문 등 -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챗gpt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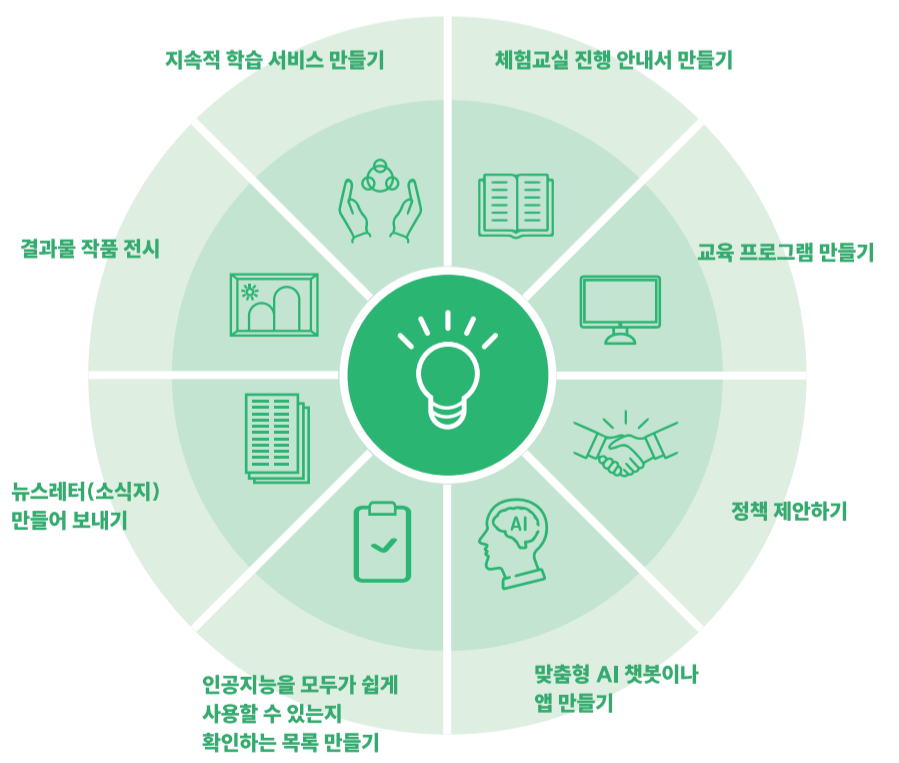
**최미령 공익활동지원센터매니저**  
워크숍은 작은 규모였지만 함께 모인 이들과의 소소한 활동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술이라는 주제와 용어 자체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서비스 연구실 모임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문장 하나가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체험교실을 시작으로 단계별, 주제별, 커리큘럼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윤영 공모장**  
서비스연구실 덕분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 기술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서비스연구실 활동과 AI 체험교실에서 만난 가슴 뛰는 희망의 가능성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최근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AI의 역할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이 더 큰 변화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아이와 같은 성인지적장애인을 비롯해 다양한 층위로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비스연구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 영향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유정 공모원**  
인공지능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쉽게 사용하고 결과물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니 더 많은 참여자들을 모아서 워크숍의 진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졌습니다. 실습 난이도를 높여가며 (쉽게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커리큘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아침 공모원**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기술 리더러시라는 영역에 도구 활용법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 고민 또한 포함되는 이유죠. 워크숍 준비 과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나아가 비장애인으로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계는 어떻게 관계 맺는 게 바람직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 사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지, 지적장애인 입장에서 특히 유용하거나 위험한 AI의 특성은 어떤 것일지 등을 고민하며 스스로도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직 답은 찾아가는 중이지만요.

**서비스연구실은 인공지능 시대의 지적장애인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연구실이 더 궁금하신가요? 서비스연구실과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해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연락처  
전화: 010-2209-0890 (공모장 조윤영)  
이메일: yunywow@naver.com  
인스타그램: @javis\_lab\_official

여러분의 참여로 지적장애인과 AI가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